

2023 새해 이렇게

구북구 화순군수

“제2생물의약산단 조성... K-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군정발전혁신단·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지역상품권 연중 할인 5대 특화작목 집중 육성...화순 적벽 명소화 등 관광 1번지 구축

“희망찬 계묘년을 맞아 화순군이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6개월 동안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관광으로 돈 버는 화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공약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은 역할을 집중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로 화순을 바꾸고 소통과 섬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인사혁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투명한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먼저 공정과 혁신의 가치로 화순을 바꾸고 소통·섬김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화순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인사 혁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공직자가 오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뒷받침한다.

또 읍·면 순회 사랑방 좌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수시로 군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정발전혁신단을 운영해 생활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군정 비전을 제시하는 등 혁신을 이룰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화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과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화순사랑상품권을 연중 할인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줄이지 않고 확대할 계획이다. 제2생물의약산단단지지를 본격 조성하고 바이오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 화순을 K-바이오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반려 동·식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경진대회, 난 전시회 개최 등 반려 동·식물산업도 육성한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화순을 남도 관광 1번지로 만든다. 화순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전담할 컨트를 타워를 만들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에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해 전국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

농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동북 연둔리 숲정기, 김삿갓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지 조성, 환산정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권역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화순 적벽을 본격 개발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이양 홍수조절지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화순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소득 창출로 돈 버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5대 특화작목과 한약재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을 선별해 집중 육성한다.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을 활성화하고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을 개선해 농민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판로 확보에 정성을 다할 것이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SOC를 대폭 확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다문화 문화원 장애인 복지관 설립 등 군민 복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 상생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과 24시간 양육 돌봄 제도는 벌써부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끝으로 구북구 화순군수는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더 자주 소통하며 새로운 화순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배산임수’ 수려한 경관 장흥 오토캠핑장 문 연다



장흥군 안양면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이 다음달 1일 정식 개장 한다.

<장흥군 제공>

수문 블루투어 캠핑장 다음달 1일 오픈...카라반·글램핑 등 갖춰

장흥군 안양면에 자리한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이 오는 2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은 수문항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망으로 조성돼 개장 전부터 캠핑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중에는 군민과 캠핑 전문가들의 신청을 받아 임시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한다.

캠핑장이 최종 정비를 마지면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은 총면적 2만2226㎡에 카라반 7동, 글램핑 4동, 캠핑데크 15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각 2개소와 놀이터, 1.5km 길이의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걸어서 5분 거리에는 2022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수문해수욕장, 한승원 산책로, 수문어촌체

험마을 등이 위치해 있다.

캠핑장 시설 사용료는 카라반과 글램핑 4명 기준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이다.

야영데크는 크기에 따라 평일 1만5000원, 2만원, 주말·공휴일 2만~2만5000원이다. 성수기(6~8월)는 이용료가 소폭 상승한다.

기타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장흥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공식 홈페이지(www.jangheung.go.kr/sumunblue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우시장 18억 투입 시설 현대화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선정

강진군 우시장에 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한우 사육 농가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군특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시장을 전면 보수한다고 밝혔다.

확보한 도비 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축시장을 보수·신축하고 전자경매시스템 등 현대화시설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2001년 3월 개장한 강진 우시장은 연간 1만 6000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송아지브랜드 경매시장’과 ‘혈통우 경매시장’을 월 2회 별도 운영해 전국 송아지 공급기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시설 탓에 소가 탈출하는 등 농가 및 방문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강진군은 예산확보 즉시 계류대 안전시설 및 소독시설 등 가축시장동을 완전히 교체해 종사자 및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으로 경매정보를 체계별로 안내하고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선진 경매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새벽 강진 우시장을 방문한 강진원 군수가 한우농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에서 두세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강진 우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유전체 검사를 통한 개량 등 강진 명품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에 전념하겠다”면서 “특히 사료값

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TMR 자가사료 배합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가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만큼 한우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첨단3지구 6월 착공... 장성군 ‘싱글벙글’

AI·첨단의료 등 미래 연구 산단 조성...3371세대 아파트 착공도

첨단3지구가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인구 증가에 대한 장성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광주시와 장성군 접경지역인 첨단 3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시행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장성군 진원·남면과 광주 비아동 일원에 인공지능, 첨단의료 등 미래지향적 연구 산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염원 속에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설립도 첨단3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발부지 361만 6855㎡(109만 평)로 근무 인력 4만 5000명, 거주 인구 1만 8000명 규모를 지녔다. 조성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7440세대, 단독주택 338세대에 이른다.

사업 대상지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70%가 장성

지역이다. 진원면 산동리, 학림리, 남면의 삼태리, 월정리가 첨단3지구 개발의 주무대다.

6월에 착공되는 아파트는 A1, A2블록으로 3371세대 규모다. 인구 수로 추산하면 8427명이 장성군에 유입될 수 있다. A8블록에 449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도 예정되어 있어, 총 3820세대 9500여명 유입이 예상된다.

민선8기 장성군 공약인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단단지 신규 개발, 미래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까지 실현되면 진원·남면 일대에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

그간 장성군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7월 첨단3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변경 동의안을 장성군의회로부터 가결 받은 데 이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전라남도 사전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나주 공공심야약국에 ‘목사골한국약국’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밤 10~12시 의료 공백 해소

나주시가 야간에도 문을 여는 반딧불 약국 지정으로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나주시는 1월부터 나주시 나주로 204 소재 ‘목사골한국약국’을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반딧불 약국은 시민의 일상 건강을 지키고 심야 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신규 시책(도비 보조) 사업이다.

반딧불 약국은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심야시간대(밤 10~12시) 시민 누구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구매해 복용할 수 있어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금남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편의점에서도 상

비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사가 추천해주는 약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안심이다”며 “밤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 좋고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반딧불 약국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해 약사 수당 등 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반딧불 약국을 통해 밤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전문약사의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구매, 복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복지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담양 홀몸어르신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군, 시범운영 선정...활동감지 센서 추가 설치·실시간 모니터링

담양군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돌봄 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범 운영 대상지로 담양군이 선정돼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스감지기,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과 119요원이 신속 출동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 서비스다.

담양군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100대를 추가 설치해 1055대를 운영 중이며, 응급관리요원과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하고 장비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해 빈틈없는 사회안

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에 80건의 응급신고를 접수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사고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돌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고 있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 군민과 약속한 향촌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